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澈中 印刷人 趙宜淳

今日의弱者와 그環境

一

自我를發見하는사람은 自我를周圍한環境을洞察하고 自我의環境을洞察하는사람은 自棄가업다 强弱과盛衰는時運의所致오 元來의固定은아니니 一時는優運에서보지아니하면 一時는不遇에呻吟하는것이 原則이라고는할수업슬지라도 通例가될에는틀님이업다 弱하엿다고반다시亡하는것도아니오 强하다고반다시萬古의支配者가아니다 强하다가弱하여서亡하는者도잇고 弱하다가强하여서 地位를反復하는것도잇다 이것이 오히려 國家生活에서는流鎖되는史實이라고할것이다

二

그러나弱하던者가 반다시强하여지는것은아니니 問題는 弱者가悲運을打開하는努力如何와方法如何 또는決心如何가 오즉그運命을決定할것이다 …

[illegible]

三巨頭代表會議

決定된三個條項

段執政의召集에關한張作霖孫傳芳岳維峻三氏會議는一日에開會되엿다 … (北京二日發)

二次會議가注目處

代表의報告는무엇

奉天國民兩軍의第一次平和會議의結果奉天國民兩軍代表는… (北京二日發)

九日以內에總攻擊

聯合軍會議의決定

【上海에서趙特派員發電】

戰機는漸次擴大하야生血의腥臭가全國으로瀰漫하고兩便은爭覇의分岐點이라는徐州에全力을集注하는中인데 聯合軍은去三十日夜에會議를열고九日以內에總攻擊을開始하기로決定하엿더라

徐州大激戰

聯軍符離에前進

聯合軍은一日未明徐州의奉天軍에對하야總攻擊을開始하고宿州方面에서大激戰이잇섯다 … (上海二日發)

固鎭占領

… (上海二日發)

新安鎭附近衝突

… (上海二日發)

聯合軍退却

… (上海二日發)

奉軍湖鎭退却

聯合軍은追擊中

奉軍의報에依하면湖鎭에서安徽土着軍과激戰한結果奉軍退却… (上海二日發)

奉軍航空隊活躍

… (奉天電)

岳氏軍費要求

河南督軍岳維峻氏는李景林氏에게對하야政府及奉天軍의浙江軍에對抗할軍費를要求하엿는데 …

動亂과奉派

奉天側은今番의動亂은浙江安徽에…

… (北京二日發)

伊國國粹黨

祝賀大會準備

… (나우엔二日發)

二分五厘說支持

日中間의大難關

關稅會議에서早晩逢着할日中兩國間의最大難關인國定稅率施行… (北京二日發)

朝鮮國境關稅

樂觀하여도可

◇大村書記長談

中國關稅會議의國境關稅問題에就하야大連商議所가率先하야…

獨逸國粹黨首

『부』市에서演說

… (나우엔二日發)

駐中米軍

撤歸勸告

亞米利加委員等이

… (華盛頓二日發)

三分? 四分?

動亂과中國將來【下】

上海에서 趙德津

◇

江蘇, 安徽, 江西, 福建, 浙江의五省聯軍總司令인 孫傳芳이가 …

各省鹽稅差押

吳氏外交團에通電

吳佩孚氏는北京公使團에對하야 … (上海二日發)

意氣가銷沈

吉林方面日人

◇朝鮮軍參謀談

데허란共和政治

實施宣言不遠

『데허란』報道에依하면共和政治… (나우엔二日發)

山東統捐稅와

張氏의訓令

… (奉天二日發)

社會黨援助希求

『빵』氏首領과會見

◇소평紙의觀測

佛國首相『빵르베』氏는… (나우엔二日發)

英國의政策

首相볼드윈氏演說

在倫敦 龍洲生

◇經濟

◇우리는 지난五個年동안에歷代政府의努力으로말미아마…

◇共産主義

…

◇東亞漫畫

建造費를容認하면

財政計劃에大變革

日本海軍省의補助艦建造費의大鋼에… (東京電)

海軍首腦部

官邸에招待

圓滿解決希望

… (東京電)

豫算省議開催

… (東京電)

森林令改正案

緣故林無償拂下?

朝鮮總督府에서는… (東京電)

在朝鮮露國人

歸國規定

…

防疫會議開催

◇關水衛生課長談

…

各地補充金

…

露大使館

七日에開館式

◇共産黨의計劃

… (東京電)

消息

…

橫說竪說

…

世界的優秀品

三共洋針

全鮮有名한朝鮮人側雜貨商店에서發賣함

公演 十一月四日 【一枚一人限】

◇逝去한 朴殷植氏

朴殷植氏長逝

一日午後七時上海에서

우여러겨레의섬로를입어 오래가매우위중하든 박은식朴殷植씨는 드디어 지난일일오후 일곱시경에 륙십칠세를 일긔로세상을떠나고말앗다더라 【三日上海特信】

◇略歷 先生은 黃海道에서 出生하야 舊韓時代에 皇城新聞社에서 記者로 잇섯고 大韓每日申報에 主筆로 잇다가 辛亥年에 西間島 桓仁縣으로 건너가 그 이듬해에 北京으로 갓다 하며 伊後 中國各地와 露領 各地로 다니다가 上海로 와서 假政府大統領 等을 지낸다는데 先生의 著書로는 韓國痛史, 獨立運動之血史, 明臨答夫傳, 泉蓋蘇文傳 其他가 잇다더라

赤露國祭日

◇금월칠일

오는 칠일은 로국혁명 기념일임으로 로국의 공화국으로 된 지 팔주년이 되는 날이라 적로령사관(赤露領事館)에서는 그날 오전 열한시부터 삼십분동안 관민과 기타각방면으로부터 축하를 밧으리라더라

武器가진義烈團員 京城에潛入說

정보에 놀랜 경긔도경찰부 개성서와 도련락하야 활동

상해의렬단원(義烈團員)리귀황(李貴晃)은 그간 중국광동성(中國廣東省)에서 모모단데와 련락하야 여러가지로 활동을 하다가 근일에 두어달 전에 다시 상해로부터 돌아와 아가비밀히 모모계획을 하여가지고 ○○파견중 중국동란(中國動亂)을 리용하야 경성에 잠입한 형적이 잇다는 정보에 놀랜 경긔도경찰부에서는 개성서와 련락하야 방금 활동중이라더라

警告文益餘張

경찰부 도활동

해외에서 배포

상해 가정부 모동관(某洞館)에서 지난달 조선인에게 경고문(警告文) 만여장을 인쇄하야 조선내디와 해외각디(海外各地)의 조선청년에게 배포하엿다는데 그 경고문은 이십삼을 압수하야 각디경찰에 통지하엿슴으로 경긔도경찰부에서는 시내 각경찰서에 엄중 경계를 하고 잇는 중이라더라

爆彈事件眞相

목덕이돈버리

지난이십일일 강산경찰서관내 (岡山警察署管內)에서 폭탄 사건이 돌발하야 강산디방재판소 검사국에서 취조중이든바 그 사건은 재작일에야 해재되엿다는데 그 진상은 목덕이돈을 벌고자 작지에 그일단을 보도하엿거니와 그후보를 들으면 이러하다더라

不穩文

간도에서 보낸 것

간도국자가연길(間島局子街延吉)도립(道立)중학교 교우회로부터 지난달 십칠일 일부로 경북도회령 홍흥렬(洪興烈) 방(方)에 보낸 편지가 불온하다 하야 압수하엿다 한다

讀者와 記者

讀者 京城 金英植 / 記者 白頭山人

讀者 記者 課題

時局에 刺戟밧고 胸裡에 熱血人物

(三)

◇六年間消息업는 玄桂玉來歷

—과격한 청년들을 시시로 상종하야 중국의 혁명인물들로 연락하게 승배—

한최근의 비밀사정이 중심사실이 되지 아니할 수 업스니 이만큼이 귀사의 내용과 청신이 단순한 현녀사의 래력이 아니되게 하여 가운데 숨은 흠이라고 대매한구를 잇거든 그런 구멍을 일사록 더욱 하야 읽어 주십시오

蝟集찬 논遊治郞 鴨綠江上靑鳥서

이러케 주주 아야로 그립은 애인의 반가운 소식만 손곱아 기다리

編者一言 이 계속 긔사는 이로부터 가장 쓰기 어렵고 가장 발표하기가 곤난한 디경으로 들어감니다 그 만큼 이 긔사를 쓰는 긔자의 고심이 연간치 아니하니 읽는 사건이 복잡하고 못이 따루지 못하야 그런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그릴 수 가업는 까닭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려니와 현녀사의 록년간 생활을 쓰려면 적어도 조선을 중심으로

革命家天津燕妓 隱然知己로自處

그 당시 중국으로 다니든 활발하고 말 잘하는 청년들과 자조 사괴게 된 현계옥은 모든 중국혁명을 못듯 중에 주국데이 혁명 사대 고인 듯 한 현계옥에게는 한편으로 여러 풍류랑의 젊은 호긔심이 침범하기 시작하야 돈으로 말로 편지로 가진 수단을 다하야 눈물 만흔 그를 흔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엿답니다 마는 그는 일일히 모다 거절하여 버리게 됨에 쉽지 안흔 일을 더하고 십허하는 사람들이 아모도 못가지는 이 갑빗싼 기생의 마음을 떠보려고 서로 경쟁삼아 가진 희항곡을 연출한 일도 만앗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가고 달이 밧고 일사록 써늣데 사못치는 기생 생활의 설움을 참아 가며 멀리 잇는 남편의 정종만 바라고 기다리든 중에 간혹 자긔 남편의 소식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오는 청년이 잇스면 힘과 정을 다하야 해외에 표랑하는 그들의 심정을 의로하여 더랍니다

意外에 情郞相逢 愛人보다 同志로

이러구러 을흔 세월이 고작한 그를 스무 살 거울 고개(峴)에 올녀다 노핫슴 뒤에 어 그의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고 잇든 남편이 어풍이 가자긔 친고 박 게 봉(朴 에 유명한 쾌남아 황옥(黃鈺)씨의 사적에 말이 맛치게 되고 련진 기루(天津妓樓)에서 그가 그 당시 기생으로 뒤에 녀자 혁명가 새데를 속하야 일홈을 일세에 떨치든 『령주진』녀사의 용장한 행적을 듯게 됨에 그는 은근히 자긔의 처리와 당녀사의 과거를 비겨 보아 언제나 모욕의 시선을 몸에 밧고 쓸쓸한 일생만 바라보게 되든 그의 눈에 새로운 광명이 빗나고 얼골에 근유이 울쓱이어 남몰레 결심의 긔색을 드러내엿다 합니다 그 가뒤에 모든 것을 원신작가 치 던저버리고 녀자로써 듯기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험한 만주 벌판으로 향하야 표면히 떠나든 결심은 실로 이 때에 한 것이라 합니다

排鬪(假名)과 가치 엇더한 계획을 가지고 몰레몰레 서울로 드러오게 되엿스나 숨어 다니는 몸이 되어 그 랫든지 그가 온지 사오일 만에야 계옥의 집 문간을 두다렷답니다 그 뒤 두 사람의 반가워하든 광경은 이 글 쓰는 긔자가 보앗다 할지라도 무슨 재조로 그려내 하는 남편에게 알일을 말하는 동시에 그를 심원 달하기 위하야 하여오든 모든 준비를 보이고 다만 애인으로 혹은 한 개의 녀자로만 자긔를 사랑하지 말고 가튼 동지로써 친하여 달라고 애원하엿더랍니다

朝鮮美人寶鑑에紹介된原文(三)

◇技藝 善歌曲, 長于舞, 玄琴, 伽倻, 短歌, 法鼓, 僧舞, 雅調歌謠, 京西詩調, 絶妙, 巧愛, 手口相應, 動人心肝 (未)

것슴니가 그런 보하게 걸작하여 두십시요 마는 에티가 그리든 남편을 맛난 현계옥은 그 남편의 계획을 알고서 주야로 쥐장스나 정세한 현어풍은 여러 동지와 계획하는 중에 한경 멀흘 일 개녀자에게 아르릴 수 업다 하야 웃웃 비밀을 직히는 것을 보고 그는 비로소 자긔의 가슴을 뒤치어 사랑

仁寺洞過激團에 萬綠叢中一點紅

의외의 조선에서 이 반가운 동지를 엇게 된 현어풍의 깃붐도 깃붐이려니와 그의 여러 동지들도 이 색다른 일꾼을 새로히 어든 것을 매우 깃거워하야 장차 올 시국의 변동을 서로 서로 토설하며 사람이 만히 다니는 기생집에 도리혀 경찰의 주목이 적다 하야 당시 인사동에 잇든 그의 집에 모히어 모든 것을 의론하게 되매 지나는 사람이 소사라 질하고 다니든 한거의 기생집이 완연히 연(燕) 나라 표(趙) 나라 슬픈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히든 국경(國境)의 집 모양으로 인사동 거리에는 엿흘에 피어 잇든 황연의 래왕이 빈번하여 닷다 합니다 (계속)

보고십흔사진 第九回發表

◇興宣大院君 력사상에 인상이 깁흔 흥선대원군의 존안을 뵈옵고 십슴니다 (先荷齋 安城 金昌榮)

◇記者 흥선대원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가치 고종태황뎨의 아버님으로 긔갑자년(甲子年)부터 섭정하시며 한참동안 계림 강상에 나는 새가 득득 떨어질 만치 세도를 하셧다 합니다 그 뒤 임신 년 무신년 조선 천편으로 고광창하게 개축한 경복궁 경회루(慶會樓)이 며 혁 혁 가는 광화문(光化門) 도모도 이 대원군의 솜씨랍니다 한말 삼걸(韓末三傑)로 삼천리 강산을 지배하시든 것도 일턱이 허상할 수 잇슴니다 늦그신 뒤로는 민비(閔妃)세력에 몰리어 한참은 퇴원(退院)하셧다가 임오년(壬午年) 군요에 또 한번 정권을 혼드신 일도 잇섯슴니다 그것뿐인가요 한참은 양이를 배척하고 서양 사람 물건에 한 눈이 가면 곳곳에 양이 쳔벼비 권화(洋夷侵犯非戰和)라는 빗돌 세워 노앗더랍니다 어느 누가 도라가신 존안이 뵈옵고 십지 안켓슴닛가

山猪出沒

농작피해 불소

정북귀정군 길상산의 수혜(鶴岷)면 길상산(吉祥山)을 압뒤에 두고 해마다 산도야지(山猪)무리가 출몰하야 농작물의 손해를 만히 녀이어 오던 중 금년에 와서는 더욱 이 심하야 산농사 하는 일반 농가에 적지 안은 해를 씨친다는데 방면발산동(方面)과 숙이골(寺谷)과 역골(驛谷)과 산동오상리(山洞五相里)와 길상산(吉祥山) 남쪽에는 사오두 혹은 칠팔두 식 떼를 지어 가지고 몰려 단니며 농작물의 손해를 만히 내이어 엇던 농가에서는 하로 갈이(一日耕)혹은 이틀 갈이 식의 만흔 곡식을 거두어 보지 못하고 바린 집도 만타 하며 요사히에는 밤낫을 가리지 아니

秋收할田穀에火災

명자에서 불이 나련소되야 손해는 오백여원에 달햇다

충북보은군 마로면관기리(忠北 報恩郡 馬老面 官基里)에 잇는 구씨(具氏)의 소유 고봉덩(孤峯亭)이 연소되야 지난 일일 오후 세시경에 돌연히 불이 이러나 동리 사람들의 진력으로 약 두시간 뒤에 겨우 진화하엿는데 이로 말매암아 명자 안에 잇든 추수할 곡식이 만히 타 지어 그 손해가 오백여원에 달햇다 하며 불난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라더라

阿片毒으로急死

중독되야급사

지난 이십삼일 오후 해주 북본정(海州北本町) 오봉국(吳鳳國)의 집에서는 엇한 일로 그 면 사람의 아편 중독으로 일시에 소동을 일으키엿다는데 그 내용은 그 자들이 아편 중독자와 해주군 금산면 신주막(海州郡 錦山面 新酒幕) 김수식(金壽植)(三○)이란 청년이 오전 일시경에 갓혼 동리에 사는 김광석(金光錫)이란 자를 사이에 두고 아편을 놋코 다투다 만취하여 죽어버렷다더라 (해주)

出嫁한女息을 기생에팔려고

손해는 아즉 미상하나 오백원의 손해 발생되엿다는데 원인은 동 마을의 고적이로 잇는 백수근(白洪根)의 어린 아이가 아즉 불이 잘 아니 되는 화로의 재를 재간에 버려서 발화된 것이라더라

金京九里(金京九里)(五)요 그로 퇴는 관수 동 북수(北秀)에서 노는 백수 홍(洪秀)의 안해로 김부구리의 친정 미산(未山)으로 한 것이라 원인은 김부구리는 박원보와 분하야 일 시 하는 기생에 팔 녀고 하는 것을 알고 관수동 김부구리가 발장 에 시집간 그 딸을 빼아서 기생에 팔 나하엿는데 그 딸은 밥을 먹지 안코 우 는 중 이것을 알고 부모가 친정으로 도라오는 중에 경찰이 이를 알고 취조하는 중이라더라

日本牛肺疫으로 西北牛移出禁止

함경도와평안도의소가 이출되지못하게되엿다

朝鮮經濟界에도大影響

루월이래로 일본(日本)각디의 축우(畜牛)는 무서운 폐역(肺疫)이 류행하야 일본당국에서는 그 방역비 이십만원을 계상하야 격렬히 방역 중인데 이 병은 산에 가면 일 년에 퍼지는 병이라 조선에는 아즉 발생되지 아니하엿스나 조선 안의 함경도와 평안도 두 도의 소가 일본으로 이출되는 관계로 그 이출을 금지하엿다 한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에 대하야 방역에 노력하는 동시에 그 소에 대하여서는 일본 당국과 교섭중이라 하며 이 때문에 조선의 경제계에도 큰 영향이 잇겟다더라

坡州의殊常靑年 市內에潛在한듯

파주서원들이경성에와서 종로서의응원어더대활동

경긔도 파주경찰서 강경부(坡州)하고 다시 시내각처로 대활동중 파주경찰서에서 재작일 오후 이라는 바 사건의 내용은 아즉 비밀에 부치고 시간상 밀히 할 수는 업스나 지난 칠일 이 명의 범인이 서울로 도망한 것 이 판명되야 종로 경찰서와 협력하야 수색 중이나 아즉 목적을 달치 못하엿더라

有力한嫌疑者

안주전씨말살사건

평남 안주(平南安州) 사회의 주권 인물이라 하든 김녕천(金寧天)씨 가 돌연히 피살된 사건에 대하야 경찰 당국에서는 그 범인이 누구인가를 수색중이든 바 최근에 유력한 혐의자를 잡아 취조중이라더라 (안주)

李東濟氏渡米

금번 봄에 일본 조도전대학 정경과(早稻田大學政經科)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함남 함흥군 주북면 중리(咸南咸興郡州北面中里)리동제(李東濟)씨는 금번에 미국 『콜롬비아』대학에 청강하고자 오늘 오후 열시 렬차로 발뎡하리라더라

◇휴지통

日本에서朝鮮으로 近五百萬의麥酒

昨年보다도近四萬瓶增加

총독부세무과(總督府稅務課)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 일월부터 구월까지 아홉달동안에 일본에서 나는 맥주(麥酒)를 조선에 디어 수입(輸入)된 수량은 사백팔십삼만 칠천사백구본(本)이며 그의 가격은 일백칠십삼만 팔천오백삼십이원(圓)에 달한다는 데 이를 작년동기(同期)에 수입된 사백칠십팔만구천팔백삼십병에 비하면 삼만칠천백이십본 가격이 만 칠천칠백이 원의 증가라 하며 수입 맥주 종류 별로 보면 다음과 가트더라

삿포로	三,三五六,四一〇本	一,二八五,八一〇圓
기린	三一〇,八五三本	一一〇,八九二圓
사쿠라	一,一四七,九九八本	四〇二,八〇一圓

兒童運動場

明年에起工決定

경성운동장이 개장된 지 한 달이 못되엿스되 벌서 경성부 금고에 수입된 금액이 엄청날게 지난이 십팔일까지 이천오백 륙십칠원 륙십전에 사용료가 이백팔십원으로 되게 이 천팔백 사십칠원을 입찰에 이르럿슴으로 명년부터 실시 한 필요한 유지비 신청을 박살할 원을 거의 준부터는 계획인바 운동장을 아주 완성하라면 아즉도 칠만원의 돈이 필요하나 위선 『불 (우렁찬)』 이 아동 운동장은 명년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라더라

第二回 全朝鮮 懸賞學生雄辯大會

◇大會期日 十一月廿一日、十一月廿二日
◇參加學校
◇參加辯士 一校一名式
◇參加申請 十一月十五日까지

◇主催 東亞日報社

御到申 請要綱

於義洞工業補習學校 生徒製品展覽

시내 의동 공립 공업보습학교(於義洞公立工業補習學校)에서는 그 학교 생도 제작품 전람회(生徒製作品展覽會)를 다음과 가티 개최하리라는데 일반은 만히 와서 보아 달라더라

◇일시 십일월 팔일 오후 一時 — 열 十시 ◇장소 동교

請負業者의背信

元山海岸埋築工事

원산부 해안매축공사(元山海岸埋築工事)를 청부맛튼 청부업자가 공사를 시작한 후 중도에 공사비를 가지고 도망하엿슴으로 원산부에서는 그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다시 청부케 하엿다더라

無情

鎭南浦物産客主組合 貴中
大正十四年十月 日
鎭南浦府億兩里
朴根植

謝過廣告

(十月)光武臺 團成社 八八六

新發明 防汗고무靴 (K) 金榮商會 京城府

特製品 萬壽고무靴 京城護謨工業所 京城府岡崎町五番地

眼耳鼻咽喉齒科專門 大松井病院 院長 松井大郎

同仁商店 京城府 店主 金仁培

益母草엑기스 大盛堂藥房 京城府 通洞一二六番地

萬種書籍을完備하고 特別廉價로酬應하오니 多小를不拘하고 注文하시요 新舊書林 京城府蓮建町二十七 振替京城二八五三 電話本局六二二

齒科 三九齒科醫院 平壤府巡營里二三 院長 盧龍奎

西洋料理 太西館 京城府公平洞七十八番地(종로동이전) 스키야키도잇소 電話光化門三一四番

汽車時間表 京城本線 京義線 京元線 湖南線

간단하고여유잇는 가뎡생활의개량

◇요사이가 가뎡부인에게매일 밧붐때이다 얼마아니하여 김장을해야할터인데 그런데다 다듬이도 해노아야하고 솜옷도지어노아야 할터이다 요사이뿐만아니라 여름에는 푸지다름이질 겨울에는다듬이질 가을에는김장 봄에는장담그고 바누질 이모양으로 부인들은 살님사리에여매이여 세상이 엇더케도라가는지 조선이엇더한 가운데잇는지생각해볼 사이가업시 세월을낭비하는것이다 어느 하가에 책을보며 친구를찻고 구경갈틈이 잇스리오 죽으라야 죽을틈이

◇업다는것 이가뎡부인의정경을 잘표시한말이다 인생의사는목뎍이 거기 아모려케해서던지 먹고입고사는데만 잇다고하면 모르거니와 인생의사는목뎍이 다만먹고입는데 잇지아니하고 좀더귀한 좀더귀한것을 찾는데잇다하면 우리는이러한 의무를 행할데잇다 이것이 오죽생명의랑비요 사람으로서 아모의미가업는것이다

그러면엇재서우리의가뎡은이러케 일이만코복잡한가 그원인을몃가지로 난흘수가 잇스니첫재규률이 업는싸닭이다 가뎡은일종의 공동생활이다 공동생활의가장필요한 조건은 규률과질서를 세우는것에잇다 음식먹고 잠자고 일하는시간을 일뎡히하며 그명과의복두는곳을정돈식혀

◇제자리에 뚝뚝드러노흐며 각사람이일을 난호아맛하 케가맛흔일은케가꼭꼭해노흔것 이죽규률잇고질서잇는생활이다 그러나우리나라가뎡은만히한데 모혀살면모혀살수록규률이업다 제각기 먹고십흔쌔 아모쌔나밥을먹고 자고십흔쌔 아모쌔나자며 일을각각난호아 맛지를아니해서 이사람이 이것도하다가고만두고 저것만지다가 고만둠으로 일도잘아니되고 시듬고귀치안키만하다 긔명도되는대로 벌려노아 무엇을하나차즈려면 원만을 다 뒤저야하는것이다

둘재는 아니하여도 생활상아모상관이업는것을 톄면과 인습에슬려고만두지못하는싸닭이다

◇가량다듬 이질하는것이라든지 흰옷을 죽입는것이라든지 하는것은 고만두어도 관계치안은것이엇마는 다듬어 입지아니하면 남이흉본다는등 흉해보인다는등 흰옷을 아니입으면 체면과 인습에슬려 곳치지를못하고 그냥질질끌고 나아가는것이다

셋재는 우리나라에 분업제도가 발달되지못한싸닭이다 가뎡이 김장하는것 장담그는것 빨내하는것들을 집에서반드시 아니하고 밧게서사드려오거나 삭을주어 집밧게서하는것과가튼 갑으로 편하게할수잇다하면 우리가뎡부인은 누구나 다그길을취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는그러한 케도가업고 잇대야 가뎡에서친히하는것보다 빗싸게 먹음으로 경제관계상 집에서모든일을하게된다 그럼으로 우리나라가뎡은 가뎡인동시에 장담그는곳이오 가뎡인동시에 빨내하는집이오 가뎡인동시에 반찬만드는재료를 만드는곳이라고하여도 무방하다

우리조선에서도 가뎡생활개선을 부르짓기시작한지는 벌서 오래전부터이다 그러나 오늘과 예전과 다름이 조곰도업다 녯날에다듬이하든것 그대로하고 녯날에흰옷입는것 그대로 입는다 이것은 첫재우리녀자들이 이문데에대한 깁흔자각이 업는싸닭이오 둘재는 이문데가 사회화하지못한싸닭이다

◇가뎡생활 개선은오즉가뎡부인의 손으로될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사회화하여 사회개선문데에 하나가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니 가뎡부인이 아모리간단하고 여유잇는 생활을하려하더래도 사회가그리케할기관과 재료를 공급지아니하면 아니되고마는 것이다 가령예컨대 석유등을 얼마나불편히 우리들이 가뎡에서 생각하엿든가 개량할방책을 생각하엿지마는 결국은 웬도회의뎐등을 공급하게됨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철저한 해결을보게된것이다 모든생활개선문뎨도 사회덕으로 취급되지아니하면 철저한 실행을보기어려울것이다(끗)

新郎新婦

함남풍산군리인면신풍리(咸南豐山郡新豐里)동운거(董雲鉅)군과신철갑(申哲甲)의딸신매숙(申梅淑)양의결혼식은십일월이십칠일에자택에서거행한다고

時事一束

安東女性會發起 경북안동(慶北安東)에서는 아측녀자집회가 업슴을유감으로 생각하든바유치원보모리기현(李基賢) 주금경(朱錦卿)양량의발긔로발긔인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일반사회에서는 만흔기대를 한답니다(안동)

創作 眞珠는주엇스나 (十九) 廉想涉 作

二一三

시계를 쓰내보니 거진세시다

—이놈 아조는런부터 안뒤서기다리는게로구나?—하며 서성거리는동안에 왼종일욱벅우벅좋든 한울은보슬비를 색리기시작하얏다

—얘이래서는아니되겟다!

커만한료리ㅅ집에오시는신사숙녀이시니 의례히 인력거를잡숫고 오실게다 하고보면 우비로가린인력거ㅅ속에서문지밤안에발을내노흐면 옷자락인들볼수잇겟니? 쉐시삼십분ᄭᅡ지 그놈이안나오거든 어ᄯᅥ케든지 별반수단을취하여야하겟다

인력거장철하막에드러서서비를거으며 건너편재ㅅ빗 삽청집에드나드는사람만눈의ㅅ불이나게노려보든 인력거군은 속으로궁리궁리하다가시계를다시쓰내보니 세시삼십분까지는 아즉오분이잇다

—어ᄯᅥ케할ᄭᅡ? 잠간 물을데가잇서야하지?

망서리다가

—예라 혹시는 권도라는것이필요한것이다!

결심을하고 병문안으로드러섯다

『여보소 잠간급한일이엇서그러니 옷을밧구어입는동안 밤에 좀드려가게해주구려』

가튼인력거군이라 물론 이의가업다 방으로 쒸드러가는 옷을벗서노코 신문보를 풀어서 퍼런학생복의우아래를 후다닥입고 모자에리화를 두줄을다시둘러 욱으러써 이러케 쓰며노코보니 비롯오경성데국대학예과생 김효범이가 다시사라온것갓다

『여보뎐화좀합시다』

효범이는 될수잇는대로 완만한태도를보이엇다

『비ㅣ 하십쇼』

써엇읜놈의자식이들어와서 지척을 하누하며눈을 회동그래ᄯᅳ고 경계를하면서 여차직하면 집어치거나 파출소에뎐화를걸라고 잔뜩벼르고 안컷든주인이며 두세명의차부는 인케서야안심한듯이 얼굴빗이 피이면서 가고야것다

『나를여러분이 혹시수상하게알듯십흐나 무슨일이잇서 그러는것이니까 아모렴려마슈』

효범이는이러케한마듸하고위선진변호사 사무소에 뎐화를걸고 지주사를 불러내엇다 이것은 말하자면데삼선(第三線)의본부이다 지주사의보고에 의하면주인은 아즉나가지안햇다한다 그다음에 집에다대이고 거니와효뎡이가 나와서밧는다 문자도업고 인숙이도업다한다 의례히업슬것이다 어ᄯᅥ면친구의 집에서 커녁밥을먹고 드러갈런이니 기다리지말라고 일러노코 닷허버렷다

셋재번으로 비로소 범인이잡복한현당에 뎐화를 걸엇다

『비ㅏ ㅂ뎡이올시다』하며 일본계집애가 밧는다

『거긔손님에 인천서 오신 리상이계신대 그커계신지 알아보고 여긔는진변호사댁인데 지금곳가겟습니다고 말슴해주소』

『비·잠간 기다려주십쇼』

효범이 뎐화는 잠간ᄭᅳᆫ히엿다 효범이는수화긔를 귀에대고안커서 가슴이 울렁울렁하도록 참을것을 참지못하엿다

『이것보세요 기다리시게해서 미안합니다 발금손님은 기다리고계신데 곳오십시사고요』

『비ㅣ 그런데 그손님방이 몃번인가요?』

『이칭 륙호애요』하고 뎐화는 ᄯᅳᆫ혓다

—머청공!

효범이는 속으로 이러케부르지지며 주인에게 은근히인사를하고 인력거방을나섯다

—흥! 이만하면가ᄉ자 형사(假刑事)노릇도하겟고 활동사진배우로 밥을비러먹을 수도잇겟군! 하지만 문자는어데서 공연히애를쓴누? 말하자면 지금데이선은 활약중인셈이로군!

하며 효범이는 회심의미소를 씌이며 비는솔솔나리ᄲᅮ리다 ᄯᅩ벅ᄯᅩ벅 ㅂ뎡으로건너섯다

文藝瑣談 長白山人
新文藝의價値(三)

◇이압흐로 新敎育을 밧는 男女가 漸漸만하가서 新文藝의 讀者가增加하면 增加할사록 文士들의思想과 藝術이더욱圓熟하야 조흔作品이 만히나오면나올사록 文藝가 朝鮮人民에게 미치는影響은加速度的으로커질것이니 조흔影響도 그러하고 조치못한 影響도그러할것이다

◇다른나라에는 文藝以外에도 人心을支配하는 勢力이만흐니 政治、宗敎、哲學、科學、傳統、社交等이잇거니와 朝鮮에서는 人心을支配하는 에이젠트(勢力)라고는 오직文藝가잇슬뿐이다 오늘의朝鮮커럼文藝의勢力이 큰것은업다고할만하다 이意味를보아 오늘날朝鮮의文藝는 朝鮮에게큰利益도줄수잇고 큰害毒도줄수잇스니 文筆에從事하는이가 여간重大한責任感을아니가지어서는 안될것이다

◇오늘날 朝鮮의 新文藝가 ᄯᅡ라나가는길이 올코 그른것은싼問題로하고 이新文藝가民心—特히敎育밧는 靑年男女에게對한 大勢이라는事實은事實대로承認하지아니할수업다

◇나는힘잇는조흔文藝가朝鮮에넘어나기를바란다 앙글로색손民族의健實하고 勇敢하고自由와正義를 生命가치愛好하고 進取의氣象과 團結力(國民生活의中心되는 動力이다)이豊富하고信賴할만한 偉大한民族性을일운것이 그들의가진偉大한文學에진바가만타하면 이케새로形成되라는 朝鮮의新民族性도우리中에서發生하는文學에지는바가만흘것이아닌가 이러케생각하는우리는 지금져우자라는 어린新文藝에對하야無限한囑望을 두지아니할수가업다

◇그런데文藝란社會의모든인스티츄션과가치 決코一個人或一團體가마치法律을만드는모양으로맘대로 지어내일수는업는것이오 도로혀自然의 生長이라고 볼만하게發生하고 生長하는것인즉 우리가健全한文藝를生育케하기爲하야 取할唯一의方途는作者側으로는 朝鮮에對한熱愛와 民族的進路에對한明哲한 識見과詩一首小說一篇을發表하는데라도 重大한責任感을가지기를힘쓰고讀者인社會側에는優秀한作品과그作者를愛護하고稱揚하는것뿐일것이다 이일을爲하야公正한高邁한評論이必要하나評論은創作과價値가갓다고하거니와엇더한境遇에잇서서는評論은 創作以上의 効果를發할수도잇다

◇그러나文藝의價値란本項에말한바와가치 思想의傳播나民族性造成의器具또는 補助者가됨에잇는것은아니니이것도其實은文藝의副産物에 不過하는것이다 그러면우리新文藝의本質的價値는무엇인가

詩歌
늣가을의밤 李永根

늣가을의밤
락엽지는ᄯᅢ에 설음이
감안한 한숨을
내마음의 느리우다

캄캄한하늘 별빗기맛터는
발가버슨 말라싸진나무숩들이
찬바람이 휩쏘는
차고도거친 거리우의
썰며 벌벅이다

눈물의 간편은 그림자가
휩싸고 감돌아가는
어둑진골작이에는
살음에서 쫏기여 난뵈들이
자갈밧 숨치는
어지럽은 물소리와 함께
애웃는 넉다리의
흐득여 울다

어둠은 밤은
내우숨과 함께 슬어지는
붉다란 해ㅅ쇠리를물고
거츠른바람이 처량히우는
황허한 ᄯᅡ우의로
고요히 그여들다

늣가을의밤
락엽지는ᄯᅢ의 서름이
감안한 한숨을
내마음에 느리우다

오수수하는 새곡은
락엽이 훗날리여
갈피잡을수업는
가다진 오뢰의길로
애웃는 넉다리의
내마음은 울며훼매이다

失題 金鏞百

일홈조흔萬歲橋아래에서는
天使와가튼處女가
수건을싯것만
이총각의이수건을
싯즐處女는
업는가보다!

로빈손 크루소 이약이 (四)

그 날밤에는한잠도자지못하고밤박새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무서울뿐이엿습니다 이것은 분명귀신이나돗깨비의 작난이라고 생각하엿지드하엿습니다 타고건너온 배도업고 ᄯᅩ달니달은 발자최도 업스니가 사람이이섬에올리는업다고 차차고편으로 생각이 기우러지게되엿습니다

만 일무엇이든지나를놀내려 주랴면 그러케 발자최하나만 들어노흘것이아니라 달리도 여러가지로 나를놀내며 줄수단이 엇는것이아닌데!— 그래서 여러가지 추측으로 그것이도깨비나귀신의소행은아니라고 생각하게되엿습니다 분명히 커건너편에잇는 야만인종이 배를타고 우연히건너왓다가 이섬이매우쓸쓸하고 황폐하엿스니까 신길에그대로 달어나버린 것이라고생각이되엿습니다

이러케생각한즉 그ᄯᅢ에 내가 그큰밤에 더오래 동안방황하지 아니한것이 매우 다행이엿습니다 그러나

내 가배어둔그배를그놈이보앗드라면 분명 이섬에사람이사는줄알것이고 그러느라면 그놈들이 모두 몰녀와서 곡식을거더가지고 실컷길러노흔 염소를 잡어가면 나는하는수업시 굶머죽을것이라고 근심되엿습니다 그러케된다면 그동안공론가맛가워 하나님의 하신뜻이 원망드되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역시 하나님의뜻이니 하는수 업다 모든것을 하나님에게맛겨 바리라고생각하고

성 경을내여들고읽엇더니매우위안이되엿습니다 그리고 지금ᄭᅡ지일이모다 나의 공상이요 그발자최도 실상은내가 그ᄯᅢ먼저배에서 나릴ᄯᅢ에 생긴것이라고— 그래서내가 그ᄯᅢ털두려워한것이바보엿다고 생각을 하엿습니다

사 흘동안집안에 꼭잠겨 잇다가겨우용기를내여밧긔사흘만에밧게를나갓습니다 그동안염소젓을짜지안이하기ᄯᅢ문에 ᄯᅳ먹을것도 잘어더먹지못하기ᄯᅢ문에엇던놈은 젖이말이기도하고 ᄯᅩ야왼놈들도잇섯습니다

그러나 밧게를나가면 엇컨지뒤에서무엇이ᄯᅩ차오는듯도하고하여서 모리하여도고발자국하고 내발하고 대어보지안이하면 마음이노이지아니할지경이엇습니다 그래서 용기를내여 그곳을가보니와 커일에그발자최는 내가 배를매인곳과는아주판곳에잇고 ᄯᅩ내발보담은 기막히게큰발이엇슴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증말로 마음이노이지를아니하엿습니다 아모리하여도 무슨변을 당하여 커나의신변은안전하게하지아니하면 안되겟다고 생각하면서집으로도라왓습니다

少年東亞日報

花郞少年會臨總 경북안동군와룡면중가구동(慶北安東郡臥龍面中佳邱洞)에잇는소년회에서는지난 이십구일동회관에서림시총회를열고 의사를진행한바명칭은 화랑(花郞)소년회라하엿스며 강령과규측을통과한후무사히 폐회하엿답니다

綱領

一、우리는누구에게든지人權을蹂躪치말자

一、우리는相當한人格을培養하자

一、우리는모든不自由不合理의拘束網으로부터解放되자

一、우리는民衆運動에흥흥한將來일군이되자

任員

指導者安相珦外二人

執行委員安相調外六人(안동)

麻浦少年討論會 시내마포청년회소년부(麻浦青年會少年部)에서는소년웅변회를지난삼십일오후칠시부터 동회회관에서좌기와가치 개최한다는데 일반은이자미잇는 어린이말을 들어로꼭오시기바란답니다

問題 子息을사랑하는데는 아버지냐? 어머니냐?

可便 楊孝成 安三仁 金順童

否便 朴命得 金景俊 李容龍

新化少年討論會 마산신화소년회(馬山新化少年會)학술부에서는 지난삼십일일하오팔시반에 데칠회토론회를임시회장에서열고『子女를敎育함에는 父이냐母이냐』란연데로여러소년소녀의 열변과양편의속론으로옷흠맛첫는데 연데는결국승리는모편으로도라 갓답니다

新化少年總會 마산(馬山) 신화소년회에서는지난 삼십일일하오칠시반에 제팔회정긔총회를신흥상뎜안에서열고 임시의장박로태(朴魯台)군의 사회아래에각부보고가 잇슨후소년수양에관한토의가 잇스며고문한분을더두기로결의되여 김용환(金容煥)선생을추천하고 폐회하얏답니다(마산)

筏橋少年討論會 전남벌교(全南筏橋) 소년단에서는창립축하현상소년토론회를 악십륙일당디청년회관에서열엇다는데쾌활한소년들의 열변은수백의텽중에게만흔 늣김을주어성황리에폐회하엿다는데 상을탄어린이의일홈과 그론데는다음과갓답니다(벌교)

題目 成功之本이才?勤?

一等 金鍾英 否便 二等 裵相珍 可便 三等 李貴來 可便

江界幼稚園園遊會 평북강계(平北江界) 양성유치원아동칠십여명은 거월이십팔일에보모박정원(朴貞元)씨 인솔하에당디동문밧 아한동에서원유회를열고 유쾌한하루를보냇답니다(강계)

◇地方論壇◇ 普明校의廢運을보고

前灘分局一記者

人間의知智는可히形言치못할만한進就性을가진同時에極히低能한退步性을가지고잇서서此를啄磨하면啄磨할스록無限히進化하야지고放置하면放置할스록無限히退化하야지는것은누구나熟知하는事實이다 今日社會構造가時代의思潮變遷을따라서漸漸進化하여가는것은우리의肉眼에感觸되지안는自然의理勢인줄알것지만事實上人間自體의進化要素인智力增進으로해서적이나마今日의文明을謳歌하게된것이다

◇그런지라一個人의智力이增進하면그만큼한國家의文化도隆盛될것이오 한國家가隆盛하면그만큼全社會가進展할것이니이로말미아마今日의人間은最大慾求가教育이라는그것을切實히늣기게된것은教育이라는그것이人間智力增進上不可缺의事業이기때문이다

그러나大體慾望이잇는곳에는實行이잇서야된다 그런데部分的으로우리高原內上山面을보자! 現在教育狀態를말하자면實로利口世論이라도能히開口치못할地境이니이엇진일인고? 적어도面內千餘戶에敎育機關이라고는두個도볼수업는다만私立普明校가하나잇슬뿐이다 筆者는明校의運命이前後한[illegible]는痛切히늣긴바이에該校를爲하야面內有志諸君에게誠心으로忠告하노라

◇同校가距今五六年前에上山面中의新山面一部有志의向學熱誠으로[illegible]의부스럭이를收拾하야겨우産出運命하다가幸인지不幸인지今年에와서는[illegible]刷新하고設備를完成하는同時에校舍까지新築하기로有志가決議한것이結局位置問題로水泡에도라가서悲慘한今日의現狀을이루는것이엇지不祥事가아니냐? 諸君이여! 位置의關係로目前에迫到한悲運도不顧하고已往竣附新築에着手하엿든것까지中止하고엇던人士는創立當時에寄附한金額을借用證서지作成하고支拂치안켓다고別別困迫한答辯을한다니敎育의誠不誠은莫論하고諸君의良心이야欺瞞할수잇슬가?

◇그리고高原에서有數한富豪라고自處하는이들이越視秦瘠의態度를가지고잇서서諸君의[illegible] 다르다! 諸君도말하리라『남에게踐躪과壓迫을當치아니하라면智識을배워야한다』고 그러면엇지하야좀奮發치못하고些少한感情과淺僻한見解로서大事를阻呪하는가? 이危急存亡의秋를當하야我不關焉的態度를가지기는너무나心腸이燥急할것이다 操則存하고舍則亡이란말은普明校를두고한말인가한다 速히反省하라 諸君이여!

自由鐘

◇投稿規定◇ 一行十四字二十行以內 [illegible] 『自由鐘原稿』라朱書를要함 ◇投稿歡迎◇

푸로同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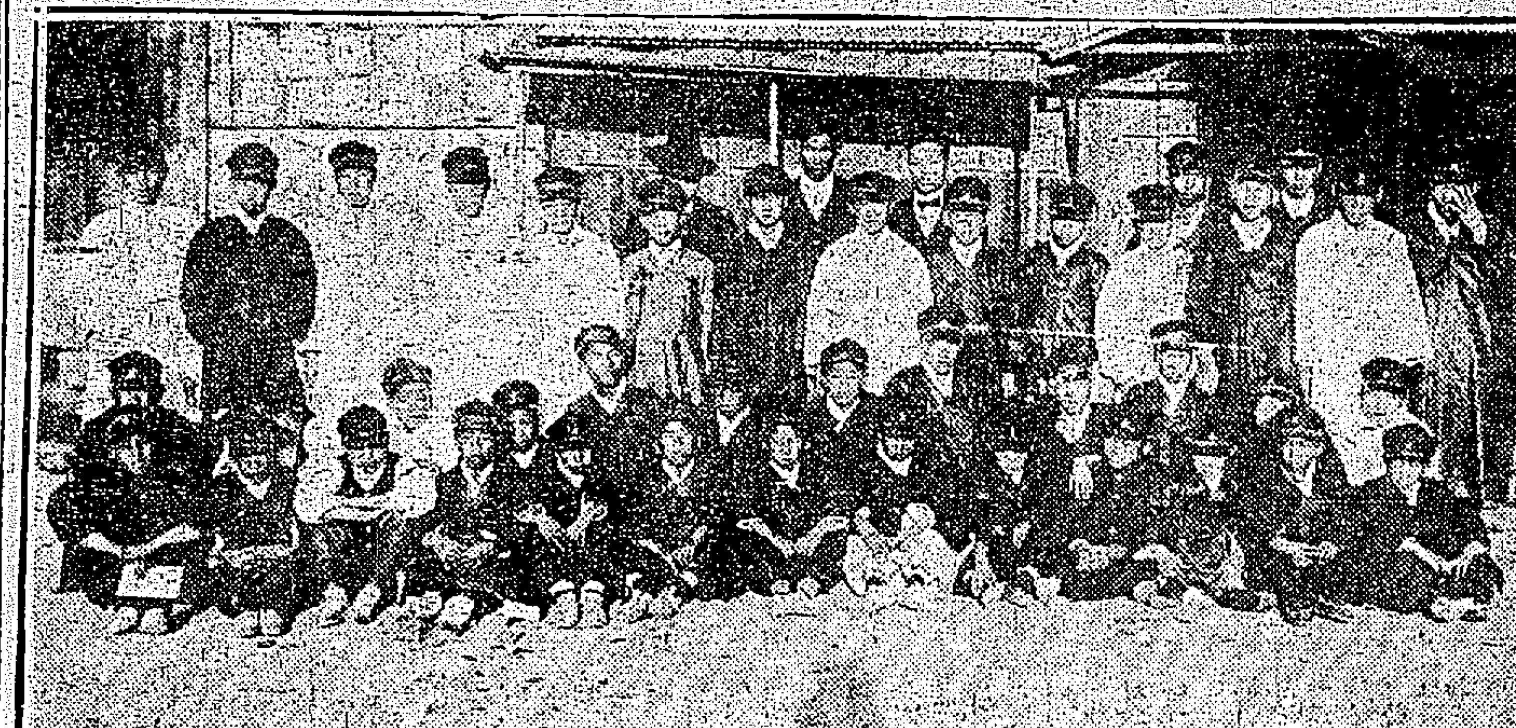
◇社會進化의큰바퀴는長久한時間에法則잇는軌道를通하야쉬지안코구을너奴隸制度,封建制度,資本制度를거처將次新社會를向하야突進하려한다 現代資本主義的極端의暴威는모든自然을破壞하고一切의不合理와矛盾만을產出하엿다 그리하야自由와愛의世界는荒廢하고人類는惡魔化하고豺狼化하엿다

◇보라 人間歷史는서로猜忌와煩悶,恐怖와咀呪의소리로連鎖되지아니하엿는가? 아! 人類社會가支配階級과被支配階級으로對立한그날로비롯하야人間은醜한눈물의바다와애타는긴한숨의怨恨의歷史페이지를지어내엇슬뿐이다

◇아! 푸로同伴들이여! 우리는[illegible]

(朴大成)

朝陽普校生本社見學



황해도봉산군만천면(鳳山郡萬泉面)조양보통학교(朝陽普通學校)에서는 수일전경성에수학려행을왓다가 재작이일오후네시반경에 그생도사십일명이 교원리창섭(李昌燮)외량씨의인솔아래본사를견학하얏습니다 ―사진은그견학단일동―

全收二石九斗에 小作料二石四斗

吸血鬼好標本閔丙承의毒行

京城府鐘路洞閔丙承의所有인江原道原州郡[illegible]의土地는매우土質이좋지아니[illegible] [illegible]

保寧小作委員

七個條項決議

保寧郡熊川小作組合에서는去月三十一日에委員會를開催하고左와갓치議決하엿다고(保寧)

◇決議事項

一、小作料五割外에舍音의租一石에對하야色租五升씩加捧하는것을二升外에는不納하기로할事

一、以代金半部를地主가先給치안는면以를廢止할事

一、麥作으로因하야稻作이減收되는水畓外에乾畓에對한二毛作은小作料를不納할事

新義州洋襪工場

新義州洋襪工所는全部가中國人의經營으로[illegible]

(新義州)

錦山에『라듸오』

常設을計劃中

陶山書院聲討와 都草爭議에檄文

安東火星會執行委員決議

光州에幹部派遣

拘禁된幹部爲해 小作人會活動

開城朴淵間 治道工事着手

今年내로竣工?

二割六分七厘增

農務課二回發表慶北稻況

慶北農務課調査十月一日現在慶北稻作收穫想高는二百十二萬二千六百九十石으로前年實收高에比하야二割六分七厘의增收인바 [illegible]

大正九年	二,二六八,七四九石
同十年	二,〇〇四,三七八
十一年	二,二三四,九九五
十二年	二,二六〇,五二〇
十三年	一,六七四,七三一
十四年	二,一二二,六九〇

新聞配達組合

大邱에서組織

新友글링創立

一日新高山서

普天敎本營探訪

疑雲이重重한

內藏白羊觀楓大會(第一日)

井邑支局主催六支局後援

運動競技

學生庭球蹴球

全南順天에서는私立梅山學校學生靑年會主催로지난十月三十日부터二日間을同校運動場에서全南學生庭球及蹴球大會를開催하엿다는데庭球優勝은梅山軍에게로蹴球優勝은順天普校軍에게歸하엿다고(順天)

各校秋季運動

達泉公普 黃海道信川郡達泉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十月三十日同校運動場에서秋季大運動會를開催한바男女學生들의五十餘種快活한競技와來賓의老人競走는壯觀이엿스며多數觀衆의喝采裡에서同日下午六時에無事閉會하엿다고(達泉)

寶城公普 全南寶城公立普通學校에서는[illegible]

舍人公普 平南順川郡舍人公立普通學校에서秋季大運動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豫定과如히지난달三十日午前九時부터同校長大井鶴太郞氏의開會辭가잇슨後樂隊를先頭로하야市內를一週한後競技를始作하엿는데定刻前부터모혀드는觀客은人山人海를이루엇는데三百餘名男女學生의六十三種의競技를順序대로마첫다는바最後勝利는紅隊로도라갓다고(舍人)

錦城,南二兩校 全北錦山郡錦城,南二의兩私立學校에서는去月三十一日에秋季大運動會를各其運動場에서開催하고二十餘種의競技를進行한後同六時에閉會하엿다고(錦山)

金烏山知禮公普 金泉郡知禮公立普通學校와金烏山公立普通學校에서는去月三十一日에各其校庭에서秋季大運動會를盛大히擧行하엿다고(金泉)

嘉山公普 平北博川郡嘉山公立普通學校에서는秋季大運動會를지난十月三十日午前十時부터同校庭에서開催하엿다는데定刻前부터[illegible]

光州私普 光州私立普通學校에서는第一回秋季大運動會를지난一日午前九時부터[illegible]

三校聯合 旣報=忠北沃川郡靑西,同郡靑南,同郡安南三校聯合秋季大運動會는去三十一日에靑西私立校運動場에서[illegible]

特志와慈善

東北地方

海西地方

湖南地方

畿湖地方

嶺南地方

關西地方

◇地方人事消息◇

白鶴學院主催 活動寫眞大會

귀여운게드르라 鄕村文化建設者의첫소리를! 눈밝게살피라 호미잡은敎育者孤節忠情을!

◇時日 十一月五日下午七時 ◇場所 萬鏡館 ◇入場料 大人五十錢 學生二十錢

後援 大邱靑年同盟 大邱勞動共濟會 大邱女子靑年會 大邱新興靑年會 朝鮮日報大邱支局 時代日報大邱支局 東亞日報大邱支局 ...

自我에忠實하라

불행한경우에우는녀성들아!

◇작일본지에는 황해도재령군(載寧郡)최모(崔某)라는 어린남편의안해오성녀(吳姓女)란는 아릿다운녀성이 시어머니와 시조모까지잇는 시집가뎡에서 그의착하고순질함이 봉행히시조모의눈에만 들게되야 깁흔사랑과귀여움을밧아오매 그시모되는녀자는 이것을시긔하야 현숙한며느리를구박하고 학대하다가 필경은쫏차내여 그며느리는 서리찬가을밤을 시집담밋과 혹은산기슭에서새여가며 날마다밤마다 애걸하야 지금은거의밋친사람가치 되엿다는 참혹한사실이 보도되엿다

◇그시어머니야 말로 가장잔인스런 인간성을가진포독한녀성이오그의며느리는 넘우지나치게 어리석은현숙한녀성이다 다시말하면 썩어진도덕에 갇히인희생자이다 가련한녀성이다 이와가튼녀자가 엇지 권귀오석녀에게만 하엿스랴 조선안어느곳에든지 그와비슷한 슯흔경우에잇는녀성들이 얼마든지잇슬것이다 인정업는시부모의학대밋헤서 울고잇지안으면 무지한남편의 손아귀에서 신음하고잇는녀성들이 과연얼마나 만흔가말이다

◇그러나 그들은불행하게도그가튼질곡(桎梏)을버서버리라는생각보다는오히려 그것이의례히자긔네의당할일이려니하고감수(甘受)하고잇는형편은아닌가그러나담밋헤서울고잇지안어도조타 오족자긔의그가튼진순한마음을바모리밧치어도서어머니의마음을도리킬수가업다고 생각되는때에는 탈리자긔의살아갈길을 찾는것이 먼저자아(自我)를위하야 충실한행동이오 또한정당한일일것이다 썩어진도덕을 맹목뎍으로붓들고 안타갑게울고 잇는것보다 자아(自我)에대하야 충실(忠實)한것이 오늘날그들의취하야 나갈당연한길이 아닐가한다

어린學生七千餘의 整然한聯合體操

야구와뎡구경긔도잇섯다 질추단일대는때아닌꽃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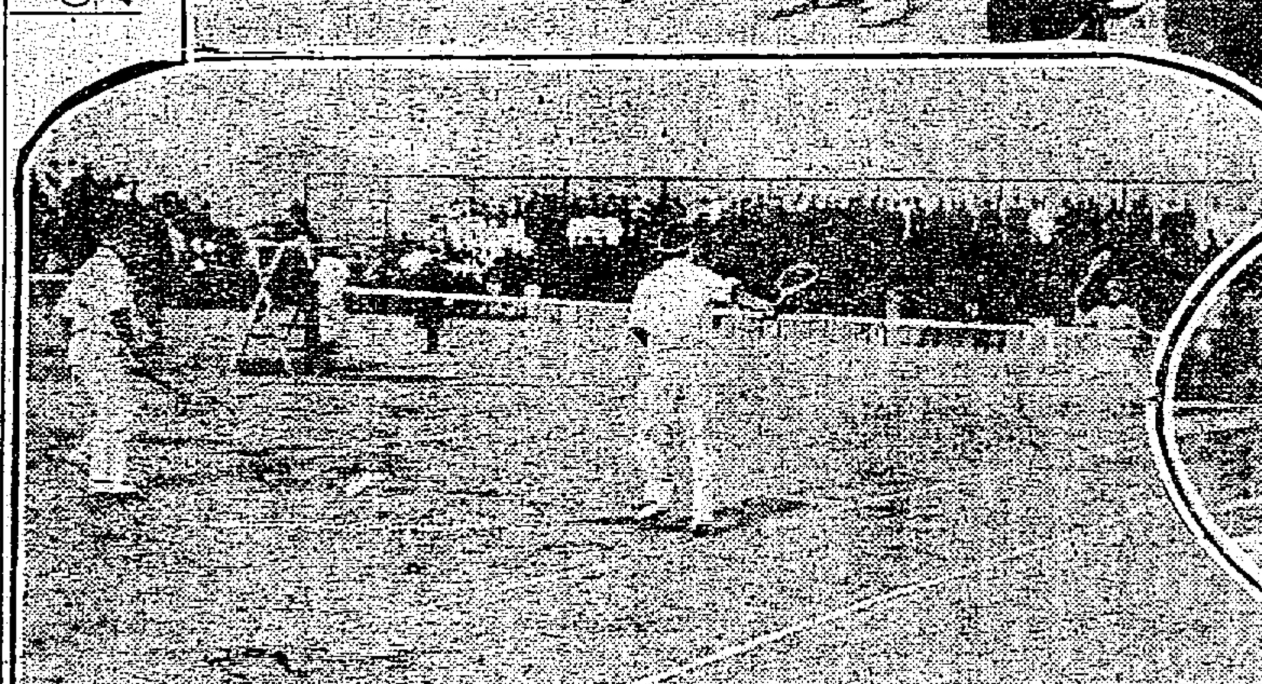
京城府體育日의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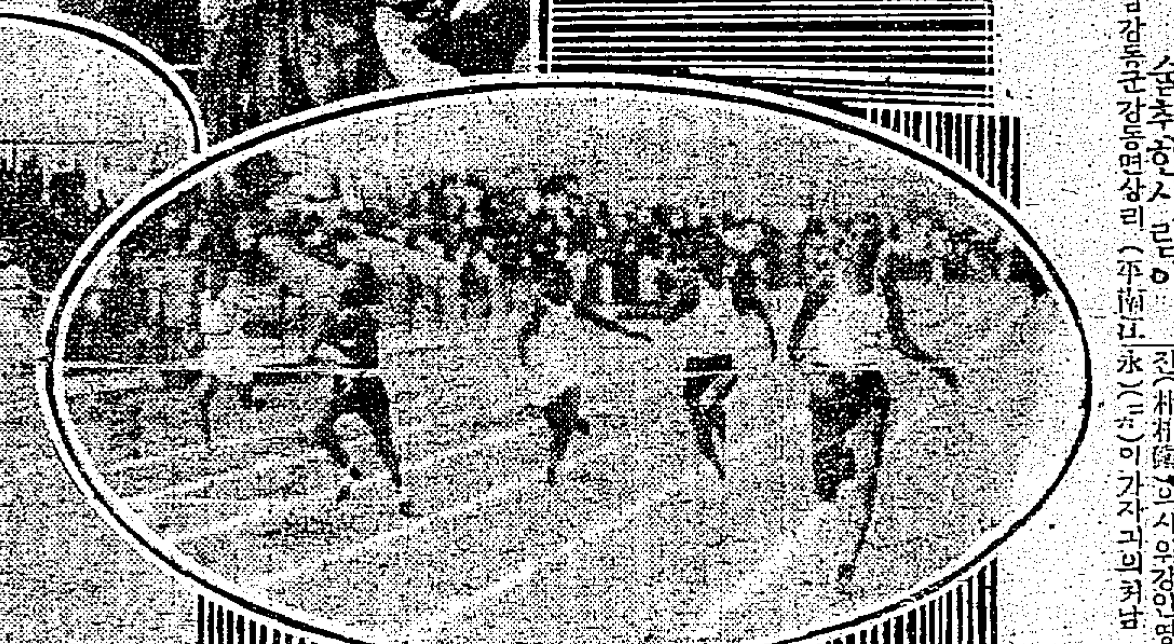
매년십월삼일에 거행하는 경성부데육『데이』의경긔는작삼일오전열시부터 경성운동장『필드』에서열리엇다 부내십구 보통학교의사학년 이상의생도 전부와 십일소학교 오년생이상 전부를 합하야 칠천오백명의 어린생도들이행진라팔소리에렬을지어라렬하자 경성부윤의 인사가잇고 인해뒤를니어 련합데조가 시작되엿는데 칠천오백이라는 구슬가튼머리들이 한결가치 움직이고인형가튼 적은손이 좌우로노는것은 흡사히애즈랑의속에 나붓거리는쏫가치 아름다웟다『메스탠드』에는빈틈업시 관중이갓득갓득 청황을일우엇고 여게저게붉은저고리 노랑저고리의 어린녀학생들은 쏫이되엿는듯 홍엽붉은장충단에 백화란만한 아릿다운광경을 일우엇다 련합데조가끗난뒤에는어린의『류랙』경기가잇섯고 오후부터는 녀학생들의데조며『그라운드』에서는야구시합이 열리게되엿는데 테니쓰도아홉부터 시작되여 하로의 데육『데이』를운동으로맛치게되엿더라

雙龍一隊의激戰

마적토벌대가승리

국경더안모아산(鷄岸輸界山)경찰서부마순관(附馬巡官)은순경삼십명보갑병(保甲兵)이십명으로조직된 합동마적토벌대를 지휘하야 지난달이십오일부터 모





◇寫眞說明 上은京城府體育日에京城運動場『필드』『스탠드』에모혀든觀衆 下는中等學生의『테니쓰』하는것(左) 普通學生의競走하는光景

牛車에서落死

술취한사람이

평남강동군강동면상리(平南江東郡江東面上里)... 아산 근처에서 마적을수색하든중 이십구일에 도구조타구(道溝早打溝)에서 쌍룡의일대약백명과 출돌하야 교전한지약한시간반지낸뒤에 두목쌍룡(雙龍)과부하이십명을 사살하고그머리를 현공서(縣公署)에 보냇다더라(모커정보)

原因은一時興奮

귀치안케군다고 화점에찔너

황해도봉산군서종면동문리(鳳山郡西鍾面東門里)에사는 박상진(朴相鎭)의사위강인영(姜仁永)(三)이가자긔의커남 박춘직(朴春稷)(三)을지난달 삼십일일에『낫』으로엽구리를찔너죽엿다 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원인을드른즉 그날술을먹고 자긔의안해와 무삼말을할때에 그의처남춘직이가『낫』을가지고와서 공연히 욕설을하며 귀치안케함으로 회김에 그낫을 쎄아서찔너죽인것이라더라(사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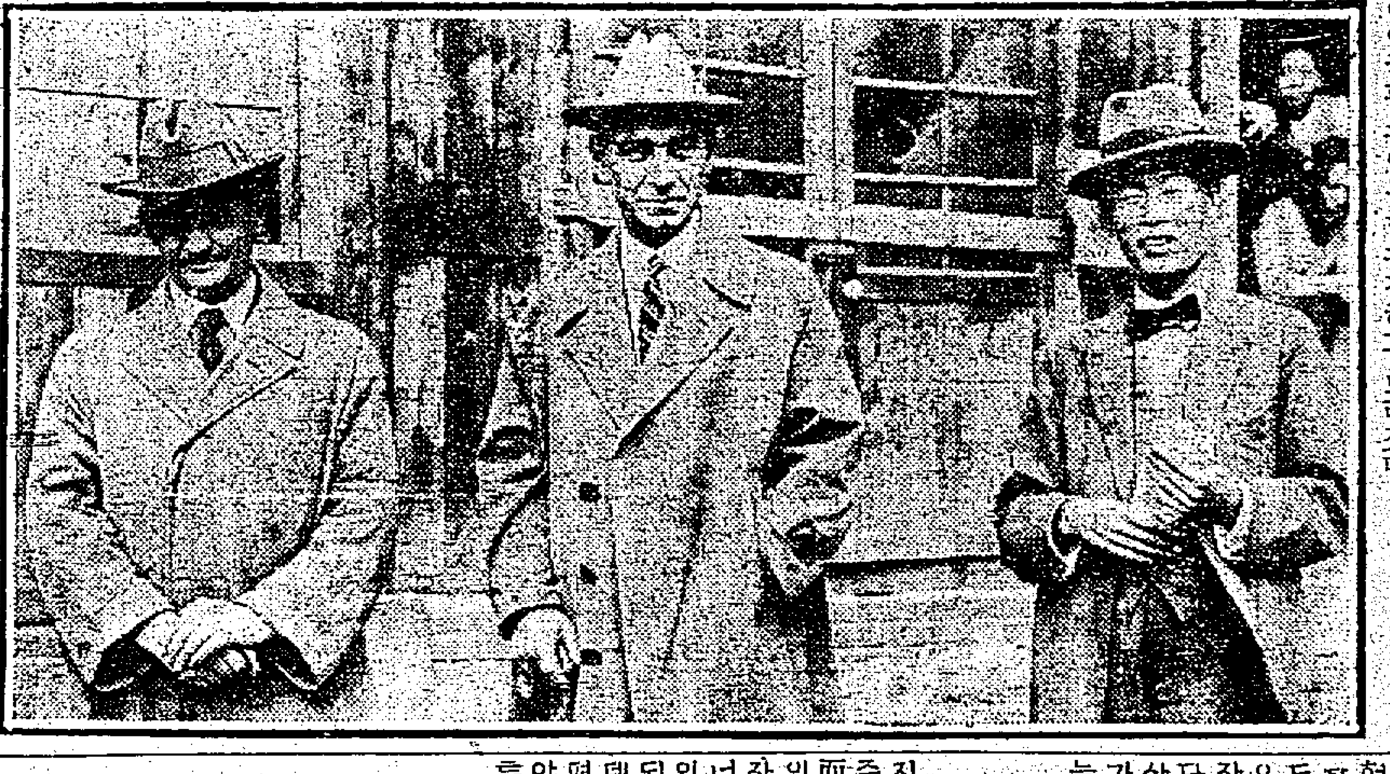
遞信局放送 라듸오改善

톄신국(遞信局)의『라듸오』시험방송은종래의설비가불충분하야 여러가지불편한뎜이 만하그 개선을오래전부터 계획하든중두달전부터 개선공사에착수하여착착공사를 진행하며 이삼일내로 준공이될터이라는데 금번새로된 방송국에는 동력실(動力室)긔계실(機械室)조정실(調整室)연주실(演奏室)연주자공실(演奏者控室)등으로되엿는데 연송실은 특수의 방음(防音)설비를 배치하야 완전하게되엿다더라

宋村江東面上里 송상린(宋相麟)은이삼일전에 술이취하야동리안득수(安得守)의우차(牛車)를타고 동면하리(下里)를 통행하다가 써러지어 참혹히치어죽엇다더라(평양)

露國總領事本社來訪

로농로서아 경성주재총령사『사르마놉』씨외행은작일오전중에 본사를래방하고 편즙국과영업국과 공장등을 구경하고 도라갓다



二十餘의土幕으로 慘憺한一部落

디주와채권자들에쫏겨나 생도일코방화하던빈민들

鳳山에새로생긴貧民窟

재령강개수공사장(載寧江改修工事場)인 봉산군서종면로산리(鳳山郡西鍾面魯山里)봉황뎡(鳳凰亭)아래산밋헤는전에업든빈민굴이사십여호나생기엿든바 이십호가량는다시다른곳으로써나가고 지금이십여호가 남아잇는데그집지은모양는계(蹊)집과 가치진흙을 비저서『계』박지만 콤싸아놋코 사람이 출입하는문는즘생과갓치 기여다니게 만드러노앗스며 입은것은 부터쏘각갓흔것으로 몸을감초고 하로동안에잘먹으면 호미밥이고 그도업스면 어린아해할것업시 쌘쌘굼는다 는데 어떤토굴에는 그것도맨들힘이 부족하야 세집식구가합력하야 집한간을 만들어가지고 세집식구가 함께지내는 토굴도잇는바 그들은모다 농사군으로디주와 채권자들에게 할수업시쫏겨나서 남부녀대로 어린것들을 압세우고 뎡처업시표랑을하야다니다가버리기하기조타는소리를듯고 모다모여든 사람들이라는데 그들의가련한 참상은참아눈을뜨고 볼수업다 하며닥쳐드는 치운겨울이 그들에게는큰원수가치생각된다더라(사리원)

多數한處女들을 誘出密賣한怪漢

필경텬진서톄포되엿다 드러난건수만도오륙건

◇……西大門署에서嚴重取調中

본적을 평양부장별리(平壤府將別里)십번디에두고 현재죽쳠뎡(竹添町)이뎡목일백아십이번디에사는 리뎡현(李貞鉉)(三)은 남의집딸들을 여러곳에서 유인하야 팔아먹은월로 경관의눈을 피하야 중국방면으로 다라낫다 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래소관서대문서에서는중국각방면에 주재하여잇는 일본경찰에조회하야 범인을 엄중히수색하든 중 수일전에권리청현은텬진(天津)일본령사 소속경찰서에 서테포압송하여 방금서대문서에서엄중한취조를밧는중인데그는 지난팔월이십사일에 시내관철동(貫鐵洞)박영조(朴永祚)의 딸인창과 호적을 위조하여가지고 그의딸 박순득(朴順得)(二五)을 유인하야 중국간도(間島)방면 어떤중국사람에게 이백오십원에 팔아먹은일이잇고 또본적을 권라남도당성군(全羅南道潭陽郡)에 두고 당시 대련신봉관뎡(大連市逢阪町)일백번다 김일(金善一)의집에 거주하든 김차분(金次文)의딸 김화초(金花草)(一八)를 유인하야 지난팔월

날일에 원적을서버서소문뎡(西小門町)일백삼십삼번디 하문청(河文成)의 당녀『상악』이라고허위의가명으로중국인등을유인해조하여가지고작부영업을하라든위도잇섯다는데그는그와가튼수단으로조선 각디에서 만흔청춘녀자들을 유인하야 중국들디에갓다파라먹은 일이취조를 거듭할사록드러나서 현재드러난 건수가오륙건이나 되다는데 공모자는도상당히잇는모양이라더라

男便毒殺未遂

십오세소부가

지난달삼십일오후일곱시경에해주군서변면 천산리(海州郡西邊面仙山里)김광순(金光淳)(一九)의안해 김선비(金善妣)(一五)는자긔남편의 먹는밥에 양재물을너허 남편을독살하라다가 사실이발각되야 해주경찰서에 검거되야 목하 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남편을독살하라든원인은 남편과본래부터 금슬이 조치못하야 매양석집을살기실혀서 그가튼범행을한것이라더라(해주)

四十萬圓燒却

엄직한돈뭉치

일부러태여버려

일본대장성(大藏省)표사에의하건대 십월능안에 태여 버린 소액지폐(小額紙幣)는

五十錢 三十四萬四千圓

二十錢 六千圓

十錢 五萬圓

合計 四十萬圓

이라는데 발행두계 사억사백오십만원중 삼억팔천팔백이십오만원을 태여버리고 지금 일천팔백이십오만원 만 남어잇다더라(동경던보)

養子確認訴

피고는양자부인

시내당주동(唐珠洞)김간란(金干蘭)은 시내관렬동(貫鐵洞)조의청(趙宜議)을상대로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양자확인소송을데긔하야 지난이십구일에 원고대리 변호사 리천종(李濬宗)씨와 피고대리변호사리풍구(李豐求)씨의데일회변론이잇섯는데 그내용인즉 원고측에서는 양자를갓다고 주장하고 피고측에서는 권과김간란을 양자로입적도아니하고양자로뎡한일도업섯다고주장하엿더라

契約金을騙取

필경고소당해

평양부신양리(新陽里)일백팔십번디김진거(金鎭巨)는동리일백사십이번디 김승호방에잇는리승뎡,리근언(李承貞,李根彦)량인을걸어 평양경찰서에 고소를데긔하엿다는데 사실의 내용은 원고가리근언두명을 소개하고 대동군룡악면서리(大同郡龍岳面西里)에잇는 타인의소유토디 삼천칠백여평을 자긔의토디라고 사칭하야 칠백십원에 매매계약을한후 계약금으로위선 사십원을 편취한것이발각되야 그와가치고소를 당한것이라더라(평양)

◇土月會◇

本報讀者優待日

十一月四日 一日通用

◉天氣豫報

晴一時曇

昨日正午 ... 昨日最低 ... 昨日正午 ...

◇珍·妙·奇!

寫眞고무印

最新發明專賣特許

◎조회하시는 高價이 고무印으로 ...

고무印販賣 福榮社

東京淵野川町... 振替口座東京七一九六一番

毛生하는 博士의藥

毛生藥 후미나인

東京藥院 東京市芝區田村町

發賣元

日進式 昭和號 製繩機

農會指定

無皮卷取 無音輕快

日進農機商會 大阪市港區泉尾町八ツ幡筋

特約 具

脊髓

色白하는

自宅職業

友榮商會

會員에게는特別優待

種兎特別割引分讓 會員特別大募集 支分場增設함

締切期日 自十一月一日 至十二月末日

說明書는貳錢切手를要함

生產兎買入 (本場昇一貫目에對하야)

白色兎 一等品 參圓貳拾錢 二等品 貳圓七拾錢

有色兎 一等品 貳圓五拾錢 二等品 貳 圓

開城高麗町一七五番地 朝鮮養兎場

東西醫學要義

定價 貳圓五拾錢 送料 八錢

總販賣所 京城府寬勳洞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保元醫院

京城府寬勳洞 百合社書店

京城府授恩洞 朝鮮商會

朝鮮劇場

團成社

胃氣不足 神經衰弱 完治

本妙法은 醫學之祖華陀先師의家庭傳來秘方이온바 不問老少하고 一七日內로 百發百中하는 不可思議의 可驚可喜할 神効無雙한 奇妙法이오니 四海僉彥은 勿失此機하시고 通知하시면 永遠히 快樂健康하실 詳細書를 送呈함

中國奉天省西塔大街三丁目 華源泰 謹啓

一生을安樂히지내라면 中國에古有한歷史가 昭詳함은 勿論이고 世界的權威를發揮한 功効가 雜的하바는 人所共知요 朝鮮에頒布한지 三朔未滿에 非常한歡迎을 蒙하는바는 試用諸位가 認定하시는 感謝狀이 輻湊하는바 며 信이 迷하는故로 今에 貧國文書를 雇聘하야 사오니 安心하시고 自宅治療하시는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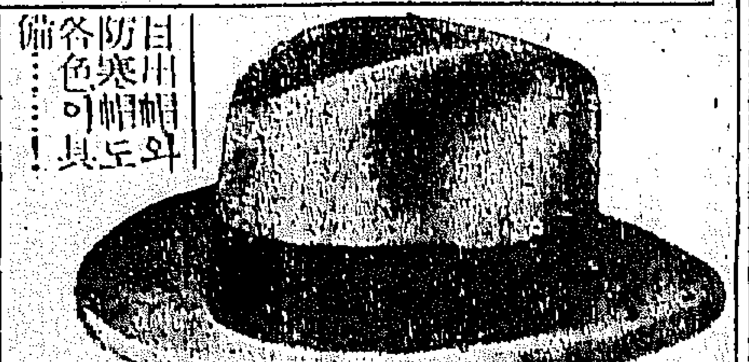
土金特別高價買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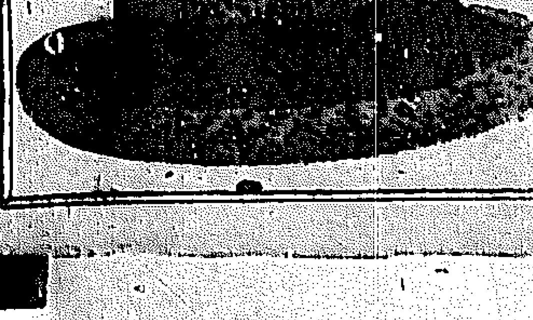
京城府明治町壹丁目 德力本店 京城出張所

電本 一一四 二五七二番 二〇八八

毒掃丸

精神美化 肉体淨化





日用帽子와 防寒帽 各色이 具備

商品目錄을 請求하시면 無代進呈함!

化泉帽子店 京城鍾路二丁目

經濟時論

棉花 (中)

紡績工業은世界工業의代表的工業이된다 此工業의國民經濟에對한重要價値는 食糧問題에對하야서보다못하지아니하게重하야 此工業의發達을따라 諸般工業의發達이生하며 그나라國民의衣食住問題가解決이된다 이제世界各國의紡績業의發達을보면 現在總錘數一億五千五百萬錘로 英國이五千六百萬錘 獨逸,佛國,伊太利,米國等大陸諸國이四千四百萬錘 米國이三千六百萬錘 日本이四百萬錘 印度가七百萬錘 其他諸國 英國이第一位 米國이第二位 印度가第三位 日本이第四位를占한다

◇

英國이나日本으로말하면 棉花消費力은相當히大하나 自國에서生産되는棉은많치못하고 大部分이海外에서輸入되는것이다 日本이海外에서毎年輸入하는棉은 三百萬俵乃至三百五十萬俵에近하는데 輸入地別로보면 大正十二年度數字에依하면 印度棉이百八十六萬俵의最多로 米棉六十四萬俵 中國棉五十九萬俵 埃及棉四萬俵 其他 計三百十四萬俵를輸入하엿다

◇

日本에드러오는棉花로는 印度棉이最多數를占하는데 그러나近來의日本의紡績業이 中國의紡績業의壓迫을受하야 太絲보다細絲를製造하게되며 細絲原料에適合한 米棉의輸入이漸加하는傾向이잇다 그러나印度棉이아직外지日本에드러오는棉花의大部分을占하는데 其輸入方法은 日本에는棉花輸入을目的하는 日本棉花會社 江商 大阪棉花會社 東洋棉花會社等 四五十個의大日商棉花輸入會社가잇서 各會社에서는出張員을 海外産地에駐在케하야 棉花輸入時期가되면 出港地되는 [illegible]等地에모여드는實棉과 繰綿을買集하는것이다

◇

그러나그곳에는所謂「코톤마켓트」(棉花取引市場)가잇서서 其市場出入의許可를得지못하고는 任意로買集키不能한外에 日本의棉花輸入商의 出張員들은其地 方棉花商과같이「파것」에加入하게되다(RD生)

客年中 鑛業産額 一千九百萬圓

總督府鑛務課調査에依하면 大正十三年中朝鮮內鑛産額의總額은一千九百十七萬六千四百二十三圓으로此를前年의一千七百二十二萬六千八百九十四圓에比較하면百八十四萬九千五百六十八圓의增加인바各鑛別로價格을示하면左와如하더라(單位圓)

鑛種	大正十三年	大正十二年
金鑛	[illegible]	[illegible]
砂金	[illegible]	[illegible]
銀鑛	[illegible]	[illegible]
金銀鑛	[illegible]	[illegible]
鐵鑛	[illegible]	[illegible]
銑鐵	[illegible]	[illegible]
黑鉛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更히此를道別鑛産價格으로表示하면如左하더라

道別	大正十三年	大正十二年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銀行業績

預金減,貸出增

十月末日現在京城組合銀行帳末의諸預金二億二千四百十萬九千八百七十二圓, 諸貸付金二億二千七百十九萬四千四百九十五圓으로前期(十月十四日現在)보다諸預金은二千九百四十六萬五千八百三十五圓減, 諸貸付金은四百二萬四千五百九十三圓增이며又前年同期에比較하면諸預金은四千八百五萬三千八百六十圓, 諸貸付金은六千五百八十四萬五千二百四十一圓의各增加인바詳細는如左(單位千圓)

移出米標準引上

等外米道外搬出은如何

近々開催될十四年度産米의檢査規則의改正案이提出될는지는詳細히未知이나若提出된다면四等의廢止와等外米의道外搬出許可로될것이다 此는近年의査定會議에서反覆된것임으로議論할餘地가업다 大阪의受渡法 改正案도此實現을促進한것이다 移出米界에動搖를與한다하는 一理가잇스나多年의懸案을相當히諒解도잇슴으로近近實現되야도조흘것이다(齋藤久太郞氏談)

不得已斷行할事 等外米道外搬出은如何 等이오倉庫業者에適當한人物을得함이最히必要한일이다 從來의經驗으로말하면各銀行當業者에獨立精神이不足한모양이다 모든것을自己가하겟다는意氣로써나가야할것이다 鮮銀도此方針下에大銀의合同에도助力하야合同할것은合同하도록勸하고저한다 또其後가아니면無理가多할것이라云云

米作豫想

一回와大同小異

朝鮮水稻第二回豫想(十一月一日現在)은아직調査未着의道가잇슴으로四日頃發表되리라는데持越의豫想에依하면結局一割四,五分의增이라더라

金融界의 改善方針

合同이最必要 — 井内鮮銀理事談

朝鮮内金融界의改善에就하야는從來에도一定方針下에進行되야왓스나金融系統의統一까지에는아직相當한時日을要할것이다 그는現在의當地銀行은아직幼兒에不過한外에이다此幼兒에對하야大人과갓흔資擔을負케함은너무苛酷하다 拂込의何倍를鮮銀에서求하야資金을得하는現狀인즉如斯하야서는아모일도안될것이다 從하야此改善의手段으로는一,拂込을徵收하야資本의增大를圖할事 一,必要에應하야減配,合同,整理를斷行할事

清酒釀造

十四年度 約六萬石乎

朝鮮十三年度淸酒는五萬餘石인데今年九月末에約二萬四千五百石의持越이잇고現在約四,五千石의消費로보면只今은先安으로인바新穀出廻의傾向은昨年보다看做됨으로十四年度는昨年보다一割四,五分의增이라結局十四年分은約六萬石이라더라(酒造)

道別	第二回豫想	第一回比較
全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砂糖關稅改正

現行砂糖輸入關稅定率法改正問題에對하야는利害의點으로互相反目하야잇든精粗糖會社도政府의決意를忖度하야其一部에는改正意見提出의計劃이잇다더라(東京電)

商品市況

◇外米(沈滯) 關稅復活과新穀氣分에壓迫되야實需少有한以外買無하고氣配鈍重한데로出殼期를經過하야來春三月頃外에는큰變動이無하리라더라

◇粟米(不昧) 昨日市中은昌圓物七圓八十錢, 八面城七圓五十錢假量인데朝鮮內大麥豊作으로細民의食糧에餘裕를生하야實行이不盛하야目前氣配는軟弱하리라더라

◇大豆(小强) 眼價過賣의反動으로三四十錢의反撥을演하야鎭川錦原長湍物十八圓五十錢內外買,天安,鳥致院六圓二十錢을示하나海外採算船積一巡後는漸低步調로推移되리라더라

期米 前場底强 (三日 仁川)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前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昨後場高强히三十二圓二十八錢에止塲하엿더니今朝阪地初付가三丁低付하야三十二圓三十三錢을報하엿스나當地는强硬한氣分이依然하야三十二圓二十八錢에前止同價로初付한後二十七錢에弛하야無味乾燥히二十七錢三本同價를示하다가阪地二十九錢의報를듯고二十一錢에低落하는際에阪地가又復十錢臺에惡化함으로㊥賣로○九錢에續落하니㊥의買物이나라나서又十一錢에强化하야十九錢을示하고十八錢에止하니二十丁高下는잇섯스나新浦初로는案外平凡閑散한商況이엿다

後場臺割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組高(單位石)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帳入價格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賣買高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合計 本期總數 [illegible]

各店倭合

中限◇買方 [illegible]

先限◇買方 [illegible]

新米出廻에

伸하는一落은難免

當時에怪異하게보앗던인데結局九十月의崩落음演出하엿스니 이下鞘의것이上鞘로變한것은感慨허低落할는지모르는일이다 ... [illegible]

一限高低와

統計的考察

大體이一月限은安定的步調로終始하는限月이다 一滴雨一點風으로못밧게波瀾을惹起하는天災期節도다모라가고또端境期의品貴의現象도一掃될으로當時豊凶과新米出廻狀況如何에依하야左然支配되는限月인때年年事豊登의時는理想的賣가먼저부터流行되야버리고實際出廻期에들어가서는過賣[illegible]

◇一月限一代高低

年別	對中限鞘	發會	高値	低價	納會	前年實收 千石
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月發會한것은即大正十五年一月限이기未來十五年이지만은一見便宜키爲하야揭記

反動이生하는것이흔히보는前例이며또大體高下의波瀾이急遽하지도아니하고크지도아니한것은事實이다 ... [illegible]

變鞘兆朕이顯著

아미數三個月來期近일사록高値하야中限은當限보다低位에在하야逆鞘의現象을보다先限은中限보다低位에在하야逆鞘의現象을持續하엿스나前月부터도期近이떠러지고先物은期近에相伸치아니하야漸次鞘하는것이現著하게되야... [illegible]

米豆餘墨

◇……天候良否에依하야波瀾을捲起하는浮動的期節은다도라간만치時勢는漸漸安定되야가는觀이잇는것

◇……十一月一日現在殘存米在高는十日頃發表되리라고하는데五百萬石以上되리라는觀測이遂行, 別材料가업는此際에는其發表數字多寡가또한一材料노롤할듯

◇……忠南地方來信에依하면을제取하야본즉收數가減하고또뜨드러본즉實收가減한다고이것으로조증을推量할수는업지만은大體風水害가잇섯던만치第二回豫算이幾分減少되지아니할는지모르는일

◇……大體今年은秋日氣良好한만치秋事가迅速히進捗되는것은事實苛田狀況을드럽하더것이어케갓흔데말서仁川埠頭에비싱으로築成한배의산을보겟스니

高를豫觀하는理想買가崩生하는外닭으로變鞘의兆朕이現著하야지는것인데이것은決코有心者로平平凡凡히看過할수업는일이다 七月에漸漸凶作端境期에들어가는쌀로서下鞘로變鞘되는것은當時에怪異하게보앗던인데結局九十月의崩落을演出하엿스니이下鞘의것이上鞘로變한것은感慨허低落할는지모르는일이다 ... [illegible]

仁川正米强硬

㊂三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㊃四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無檢查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一石 [illegible]

正租 改良種 一斤 [illegible]

在來種 一斤 [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止跡氣配 ◇先限 三十六圓九十二錢

東京期米

	前場	後場
一節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兵庫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桑名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下關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各地期米高低

	前日止價	今日前付	比較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	[illegible]	[illegible]	低
東京	[illegible]	[illegible]	低
兵庫	[illegible]	[illegible]	低
下關	[illegible]	[illegible]	低
桑名	[illegible]	[illegible]	低

◎各地穀物

大邱 賣買高 一百〇〇石

	十一月末	十二月中	十二月末
穀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場止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賣買高 [illegible]

	十一月末	十二月中	十二月末
全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場止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賣買高 [illegible]

	十一月末	十二月中	十二月末
穀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式 前場稍盛 (三日 京取)

◆京取五十錢高 ◆鐘新一圓十錢高 ◆大新一圓九十錢高 ◆仁新保價 ◆安取二十錢低 ◆朝紡十錢低

二十五圓說은疑問 上放？伸悩？

京取는仁取合併問題와配當增加說等으로昨今堅調를示하는데漸次買氣가擡頭하는場面을呈하는反面에賣物源이無하엿스나大新의軟保로可制의勢力가업서요국底意가强硬함으로外國의에遽然히李昨側의買進으로三十錢高인廿一圓의鐘의高付價를示한後上放의氣勢로利喰賣物이相當함을不拘하고二回商을突破하엿스며李昨側의買物은繼續旺盛하야다시二十一圓에附한後一向下倉價가三十一圓의氣勢를거듭하였을따과遇般十八圓解合이겨우一轉機를作하야그동안低價二十四圓關門을支持한바目下現狀으로는多少觀望되는것이라고할것이라야二十五圓說이外지聞하나果然二伸氣가되는것은無理 ... [illegible]

後場保勢

◆京取十錢高 ◆大新十錢低 外에는前場의引續으로人氣[illegible]大新이四圓關의八十四圓薄에에沈滯하야大新의新高價를示하고京取는二十一圓二十錢付價는十錢高인二十一圓二十錢

不安人氣尙存

綿糸暴騰影響

그동안米綿大豊作의軟材料와秋山時代가漸次迫近하는恐怖的氣分으로米棉綿糸도新低價를續出하는結果綿新의買氣는沮喪되엿든바今朝米棉一圓六十錢綿糸五,六圓의各奔騰을다라阪付는二十錢高인百二十七圓임으로當付도七十錢高인七四四十錢步調가잇섯다그러나米棉과綿糸의市勢가一時奔騰으로써安定的市勢이라하면鐘新에對한不安人氣는아만큼此奔騰으로不當한威勢가잇슬것이지만아직綿에對한市勢가從然濃厚하고此點에依然濃厚하게되는同時에上放의市勢가一時奔騰으로서此點에對한反彈力의出現으로볼수업을것이다

尺進寸退의大新

警戒人氣潛在

昨日阪地大新은引際에四圓突破의硬調를示하엿든바今朝에는阪付가保勢의八十四圓四十錢이엿스나當地는下鞘이엿든關係上一圓二十錢高인八十四圓十錢付價를示한後阪地의步調도四圓臺에稍軟하야當地의步調도만음寂寞으로反落하엿지만當地의內量은大新의步調는尺進寸退의休變이追隨함으로此에對한好感人氣가旺盛한同時에新規買가不絶增加함으로自然히投資가投機化하는傾向을示하는것이며또四圍事情이穩健的인樂觀氣分을助長하야仕手로하여금遠大한策略을謀케하는同時에市勢의生命을延長케하는感이잇슴으로今後에는賣時代를作할것이라고보는것이至當하겟스나財界[illegible]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仁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一千七百四十枚、

累計 十八萬千九百六十枚

大阪長期取引

株名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付價	後場止價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株名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付價	後場止價
東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三品

	前場付價	前場止價	後場付價	後場止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現物武州 [illegible]

◎京城綿絲布

三▲粗布(廣木) [illegible]
不老草 [illegible]
時 [illegible]
天 [illegible]
大 [illegible]
金 [illegible]
鷄 [illegible]
▲細布(洋木) [illegible]
飛天 [illegible]
▲晒金巾(玉洋木) [illegible]
▲綿絲 [illegible]
▲晒木綿(目落) [illegible]

◎朝鮮銀行券 二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銀行券 二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千圓單位)

◎海外經濟 三日着電

倫敦銀塊 三十二片八分三

紐育銀塊 七十九仙四分三

米綿 一圓六十錢高

印綿 不變

英米爲替 四弗八十四仙八分五

(一弗四分一高)

(二分一低)

鮮米食盡

近頃漸次主客轉倒의傾向이有하야外米가歡迎된다勿論目下는朝鮮米의需要도今年은그다지期待되지못한다게다가米價는十日現在仁川市內五銀行在庫[illegible] ... [illegible]

減貸後

로買入하게되결果此一萬株로會貸出償却이充當치못하게되다合計는約七萬五千圓의不良資産을計上十一萬圓의償却으로는手持 [illegible]

春香 春園作

리별 (十七) 〔第三十六回〕

이튿날 정미에이를 ... [illegible]

나무人그늘로서 상단이 뛰어나오며

「도련님!」

하고부른다

몽룡이 놀라돌아보니 상단이라 ... [illegible]

「이것은 도련님 ... 보내시는것이오」

몽룡이 나귀우헤서 ... [illegible]

「너만나왓느냐 ... 아씨는 ... 」

「아씨는 오시다가 ... 」

하고 상단은 손을들어 가르치며

「저사람이보드라도 도련님 ... 」

상단이 손들어 가르치는곳을 보니 길人가흔 소나무밋해 춘향이 홀로서서 ... [illegible]

몽룡이 나귀에서 뛰어나려 춘향에게로 뛰어가서

「에기지나왓느냐 날보내려 나왓느냐」

하고 춘향의손을잡으니 춘향이 울며

「한번더 뵈오라고 ... 」

「울지마라 울지마라 ... 」

質疑應答

◇秘密은決코嚴守 ◇ ... [illegible] ◇答은本欄에 ... [illegible]

【問】 乙은甲에게債權이잇는데甲은大正十二年에死亡한後甲의長子丙은全財産相續한후自己의債務를他人에게 ... [illegible] 如何한手續을하여야되겟습니까

【答】 乙은債務者의相續人에對하야債務辨濟를請求할수잇고또債務者所有財産을 ... [illegible] 할수잇습니다 (京城府公平洞四九 辯護士金川茂氏談)

【問】 甲의所有田地는五年前에某銀行에十年年賦償還의契約으로入質된바今年外지借金全部는償還되엿습니다 ... [illegible] 乙에게 ... [illegible]

【答】 乙은甲에게移轉手續을請求할수잇습니다 (京城府公平洞四九 辯護士金川茂氏談)

크로쓰·와―드·빠슬 懸賞當選發表

▼ ... [illegible]

婦人藥命之母

봉	경	시	경	교	구	진	영	정
				한				의
	며	의	모		경	인	세	
경	사			오	기	나		예
	신	오	서		모			차
사	리	원		친	경	산	도	
					생			설
	미		명				청	천
부	인	병	령	약		인	구	군

一等 當選者 芳名 壹名

懷中金時計 朝鮮[illegible]南鮮公立普通學校內 高在玉氏

二等 置時計 參名

朝鮮[illegible]長林公立普通學校 金光華氏

京城[illegible] 崔順貞氏

朝鮮[illegible] 李培鎬氏

三等 高級萬年筆 拾名

[illegible] 朴潤亨氏

[illegible] 金爺秀氏

[illegible] 朴石根氏

京城府[illegible] 兪炳鼎氏

成鏡北道[illegible] 金昌祚氏

[illegible] 吳充浩氏

[illegible] 鄭[illegible]建氏

[illegible] 張[illegible]濬氏

[illegible] 鄭[illegible]守氏

[illegible] 林[illegible]喆氏

四等 極上다올壹本 五十名

五等 [illegible] 壹百名

(四等以下當選者芳名은紙面關係로略하엿사오나當選者에게는直接通知함니다)

秋冷과婦人衛生

至今부터가危險乎!

子宮病과命之母

婦人은 ... [illegible]

一이러한婦人은

婦人病治療法無代進呈

東京市京橋新榮町四丁目(電話京橋八七)

命之母本舖 笹岡省三藥房

大阪市北區中崎町三四(電話北四三二三番)